



코카인 밀매 수사로 체포된 전 벨기에 국가대표

코카인 밀매 수사로 체포된 전 벨기에 국가대표 라자 나잉골란

브뤼셀 검찰청은 남미에서 유럽으로 코카인 밀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전 벨기에 국가대표 라자 나잉골란이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구 토토](#)

브뤼셀 연방 경찰은 월요일 아침 조사의 일환으로 주로 앤트워프 주와 브뤼셀 안팎에서 30건의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과 다량의 명품과 함께 2.7킬로그램(약 6파운드)의 코카인을 압수했습니다.

브뤼셀 검찰은 이 축구 선수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총 16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앤트워프 항구를 통해 남미에서 코카인을 수입한 혐의와 벨기에에서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사무국은 밝혔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37만 유로(38만 9천 달러) 이상의 현금, 각각 36만 유로 상당의 보석 2개를 포함한 여러 명품 시계, 116,000유로 이상의 금화 100개를 압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방탄 조끼 2개와 총기 3개를 발견했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몇 달 동안 클럽이 없던 나잉골란은 은퇴 후 벨기에 2부 리그 팀인 로케렌템세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주말 코너킥에서 곧바로 골을 넣으며 데뷔를 축하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팀은 성명을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 그의 체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클럽은 무죄 추정을 존중하므로 더 이상 언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선수가 훈련에 불참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럽은 내일 중요한 리그 경기인 KAS 유펜과의 경기에 계속 집중할 것입니다. 라자 나잉골란은 어차피 그 경기에 출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36세의 나잉골란은 벨기에 대표팀에서 30경기에 출전했지만 2018년 3월 이후 붉은 악마 팀에서는 뛰지 못했습니다.

불타는 성격으로 유명한 이 중앙 미드필더는 대부분의 경력을 이탈리아에서 보냈으며, 특히 로마와 인터 밀란에서 활약했습니다.

나잉골란은 선수 생활 내내 여러 가지 징계 문제를 겪었습니다. 2018년 로마에서 뛰던 그는 새해 전야에 인스타그램에 술에 취한 듯한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온 후 벌금을 부과받고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

했습니다.

2022년 로열 앤트워프에서 뛰던 그는 벤치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어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토토사이트](#)

당시 벨기에 클럽은 그의 행동이 선수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